

## K·MILK의 정신은 “상생”입니다

국산우유 사용확대! 국회, 정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상생협약 선언

국내 분유재고가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수입 유제품이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우유 사용 확대를 위해 국회, 정부, 소비자, 낙농가, 유업체가 상생협약을 선언하였다.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공동대표 홍문표·김춘진·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 한국유가공협회(회장 박건호),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은 9월 29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산우유 사용 확대를 위한 K·MILK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5개 주최단체 대표들은 물론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이현재 국회의원, 윤명희 국회의원, 안덕수 국회의원, 이한성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유관단체장, 농축산단체장, 참여 유업체 대표자 및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이 대거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내년축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는 “부친께서 평택에서 젖소 250두를 키운 적이 있어, 낙농가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며, “FTA 등의 여파로 국산 우유의 자급률이 58%까지 떨어졌다고 들었다. 유가공업체에서 유제품원료로 국산우유를 많이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으며, K·MILK 홍보대사 인요한 박사는 “국산우유는 품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하다” “국력은 가정이고 가정은 우유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며 국산 우유의 우수성을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당연 국산우유 사용 확대 협약 체결 순서였다.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박건호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순간 취재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끝으로, 우유 건배식에서는 K·MILK 홍보대사 인요한 박사의 건배식 선창으로 참석 내빈 모두가 국산우유 사용 확대와 K·MILK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였으며, 이동필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가 우유를 단번에 들이켜 마지막 순서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은 인사말에서 “협약식을 시작으로 국회, 정부, 소비자, 낙농가, 유업체가 합심한 만큼 K·MILK 사업이 국산우유 사용확대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K·MILK의 정신은 상생임을 강조하였다.

# “국력은 건강한 가정에서 나오고, 건강한 가정은 우유에서 시작됩니다”

인요한 박사, K·MILK를 알리는 “심부름꾼” 자칭

인요한 박사(연세대학교 가정의학교 교수,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가 K·MILK를 알리는 “심부름꾼”을 자칭하고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9월 22일(월) 축산회관에서 「K·MILK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위촉식에는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 황규택 부회장, 인요한 박사를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정책국장,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K·MILK인증위원장),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이 참석하였으며, 40여명의 방송·일간지, 전문지 기자들이 몰려 뜨거운 취재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은 인사말에서 “FTA로 인한 낙농업계의 어려움과 우리 국민의 우유 음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인요한 박사님”이라고 홍보대사를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에 봉사와 나눔의정신을 알려주고 계시는 인요한 박사님과 함께 우리 낙농가들 역시 양질의 우유생산은 물론 K·MILK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공익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빈축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국장은 “K·MILK사업이 국산우유 소비를 확대시키고 낙농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은 “국내 낙농산업이 질적인성장을 통해 우유가 글로벌 식품으로 거듭나도록 K·MILK인증위원장의



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이 위촉패와 K·MILK기념배지를 인요한 박사에게 전달하였다. 인요한 박사는 환한 표정으로 “101살까지 장수하신 외할머니께서 매일 우유 한잔을 드셨다”, “국력은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은 우유를 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K·MILK심부름꾼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안티우유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홍보대사를 맡은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우유 건배식에서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K·MILK사업이 이 잔에 담긴 하얀 우유처럼 우리 국민, 낙농가,유가공업체에 의미 있고 영양이 있는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라며 건배사를하였으며, 특히 인요한 박사가 우유 잔에 담긴 500ml 우유를 단번에 마셔 이날 위촉식의 마지막 순서를 유쾌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국산우유사용인증



03



04



05



06



07



08

- 01\_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손정렬 회장.
- 02\_ 축사를 하고 있는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03\_ 김연화 위원장의 축사와 각오 한마디.
- 04\_ 홍문표 의원의 축사 모습.
- 05\_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건호 한국유가공협회장.
- 06\_ 인요한 홍보대사의 건배 제의와 함께 시작된 우유건배식.
- 07\_ K·MILK사업 경과 보고를 하고 있는 김봉석 K·MILK 사업단장.
- 08\_ 김무성 당대표, 홍문표 의원, 인요한 홍보대사, 손정렬 회장 등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국민의례.

# 국산우유 사용 확대를 위한 「K·MILK」 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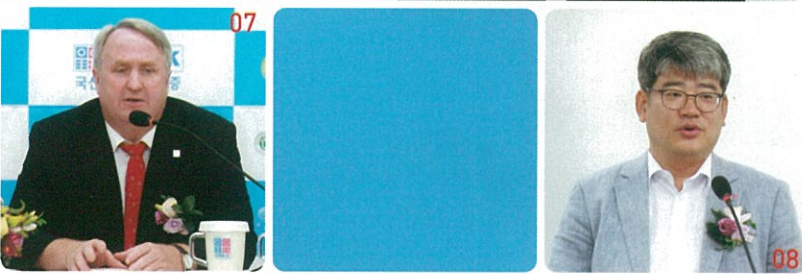
- 09\_ 협약서 체결후 시작된 기념사진 촬영.
- 10\_ 내빈으로 참석한 김무성 당대표의 축사.
- 11\_ 홍보대사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인요한 박사.
- 12\_ 5개 단체장이 각각 협약식에 서명하고 있다.
- 13\_ 협약식 후 참석 내빈과 협회 임원들의 기념 촬영.



- 01\_ 손정렬 회장이 K·MILK 사업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 02\_ 참석한 내빈이 다 함께 우유 건배식을 갖고 있다.  
인요한 홍보대사는 우유를 '원샷' 해서 홍보대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 03\_ 손정렬 회장이 인요한 홍보대사에게 기념패지를 달아주고 있다.
- 04\_ K·MILK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요한 박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산우유사용인증



05\_ 인사말을 하는 김연화 K·MILK사업 인증위원장.

06\_ 위촉패를 수여받는 인요한 홍보대사.

07\_ K·MILK사업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하는 인요한 홍보대사.

08\_ 인사말을 하는 권재한 농림수산물부 축산정책국장.

09\_ K·MILK 홍보대사 위촉식에 많은 내빈과 취재진이 참여했다.